

## CURRICULUM VITAE

### 예 병 일

근무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수

### 학력 사항

199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1998-2014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14-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수

### 경력 사항

2001-2004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심장내과에서 박사후 과정으로 전기생리학 연구  
2013 Wellcome Unit for the History of Medicine에서 6개월간 academic visitor로 연수

### 사회 활동

현재 대한의사학회 이사  
한국의철학회 편집이사  
대한 라이프스타일의학회 학술이사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



## (이미 현대 의학으로 들어온) 미래의 의학

### 예 병 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20세기 말, 인간 유전체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21세기에 유전체 연구를 기반으로 한 분자의학이 현실로 다가서서 개인별 맞춤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고 16년이 지난 지금 생물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의학의 시대는 여전히 가능성만 제시해 주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기반을 둔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진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 갤럭시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2014년에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삼성전자가 불과 2년만에 애플과 중국회사의 협공을 받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주력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미 국내외의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는 헬스케어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 3월을 강타한 구글의 알파고와李世돌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한껏 높여 놓았다. 이미 IBM이 만든 왓슨 컴퓨터가 의료에서 진단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의학과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생물기술과 정보기술은 미래의 의학과 의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를 예견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의학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MEMO

MEMO

